

7/19/26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모형, 세례 요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4 장 1-12 절

세례 요한의 죽음(막 6:14-29; 눅 9:7-9)

-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것과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오버랩 시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예표되었고, 세례 요한이 목 베임을 당해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죽음이 예표되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 그에게 참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은 훗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아우성에 밀려 십자가 사형을 판결하는 불의한 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머리 없는 요한의 시신을 수습하여 눈물로 장사 지냈던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훗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무덤에 안치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믿음의 제자들의 장례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Herod Antipas)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 때’는 예수님이 열 두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한을 주어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던 사건이 있는 직후인 AD 29 년경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열 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역을 했고, 그로 인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미신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일치성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 왕은 이두매 출신의 이방인으로,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BC 4 년부터 AD 39 년까지 네 개의 통치 지역으로 나뉜 유대 땅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을 주 무대로 삼아 사역을 하였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도 그에게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성품은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여우라고 하셨을 정도로 교활하고 간사했습니다.

(눅 13:31)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눅 13:32)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눅 13: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사생활도 난잡하였습니다.

그는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 세 (Aretas IV)의 딸 파사엘리스(Phasaelis)와 결혼을 하였으나 로마 방문 중 이복 형제 헤롯 빌립 (Herod Philp I)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파사엘리스를 버렸습니다.

이에 파사엘리스는 친정인 나바테아로 도망을 갔고, 아레타스 4 세 왕은 보복으로 안티파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비판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분봉 왕이 된 후 유대인이 되었다고 자처한 그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레 18: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레 20:21) 누구든지 그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헤롯 왕은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세례 요한의 행동을 자신의 통치를 반대하고 백성들을 선동한 것으로 여겨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으나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 왕은 혹시라도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들은 왜 세례 요한에 대해 호의적이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 주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을 책망한 것과, 로마를 등에 업고 민중을 억압하는 헤롯 왕가를 비판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고 이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를 참선지자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사람들에게 말한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불법으로 감금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동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아주 허망하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롯 왕이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매가 참석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유력 인사들 앞에서 춤을 주어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당시 남성들이 즐기는 연석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참석한 남성들에게 성적 유희를 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에, 왕의 딸인 살로매가 그곳에서 춤을 춘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헤롯 왕과 참석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격과 도덕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쭐해진 헤롯 왕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의붓 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마가 복음에 의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 왕의 말을 들은 살로매가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무엇을 청해야 할 지를 묻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하니 그대로 왕에게 청합니다.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가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백성들의 반응을 근심했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 줍니다.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살로매에게 주고, 살로매는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선지자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경솔한 맹세가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일어날 소동을 걱정해서인지 잠시 근심하기도 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심문이나 판결없이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더구나 목을 베어 죽이는 일은 종교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적 범죄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헤롯이 그것을 강행한 것입니다.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함으로 어리석은 헤롯의 맹세에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헤로디아의 살인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헤롯은 전처의 아버지 아레타스 4 세 왕과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도주했고, 또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사 로마 원로원에 의해 프랑스 리용으로 추방되어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자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머리없는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사실 이 보고는 예수님 제자들이 선교 보고와 함께 한 것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흡수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터라,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서로 연결됨을 암시합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예표되었습니다.

세레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몇가지 변화를 감지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수차례에 걸쳐 수난을 예고하시는 등 당신의 메시아직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또한 억압에 시달리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께 정치적인 기대를 걸게 되고, 기득권자들은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해 비참하게 목 베임을 당한 세레 요한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허무하고 무기력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신실했던 한 선지자의 삶이 이토록 잔인하게 끝을 맺어야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레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외쳤던 세레 요한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 속죄의 길을 예비하는 진정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세레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며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세레 요한은 세상 권력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사명을 다했습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이 그의 목을 벨 수 있었을지언정, 그가 선포한 진리마저 벨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지요?

세상의 지위와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던 헤롯처럼 사람의 눈치만 보며 비겁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온 삶으로 지켜내어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간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귀기울이는,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